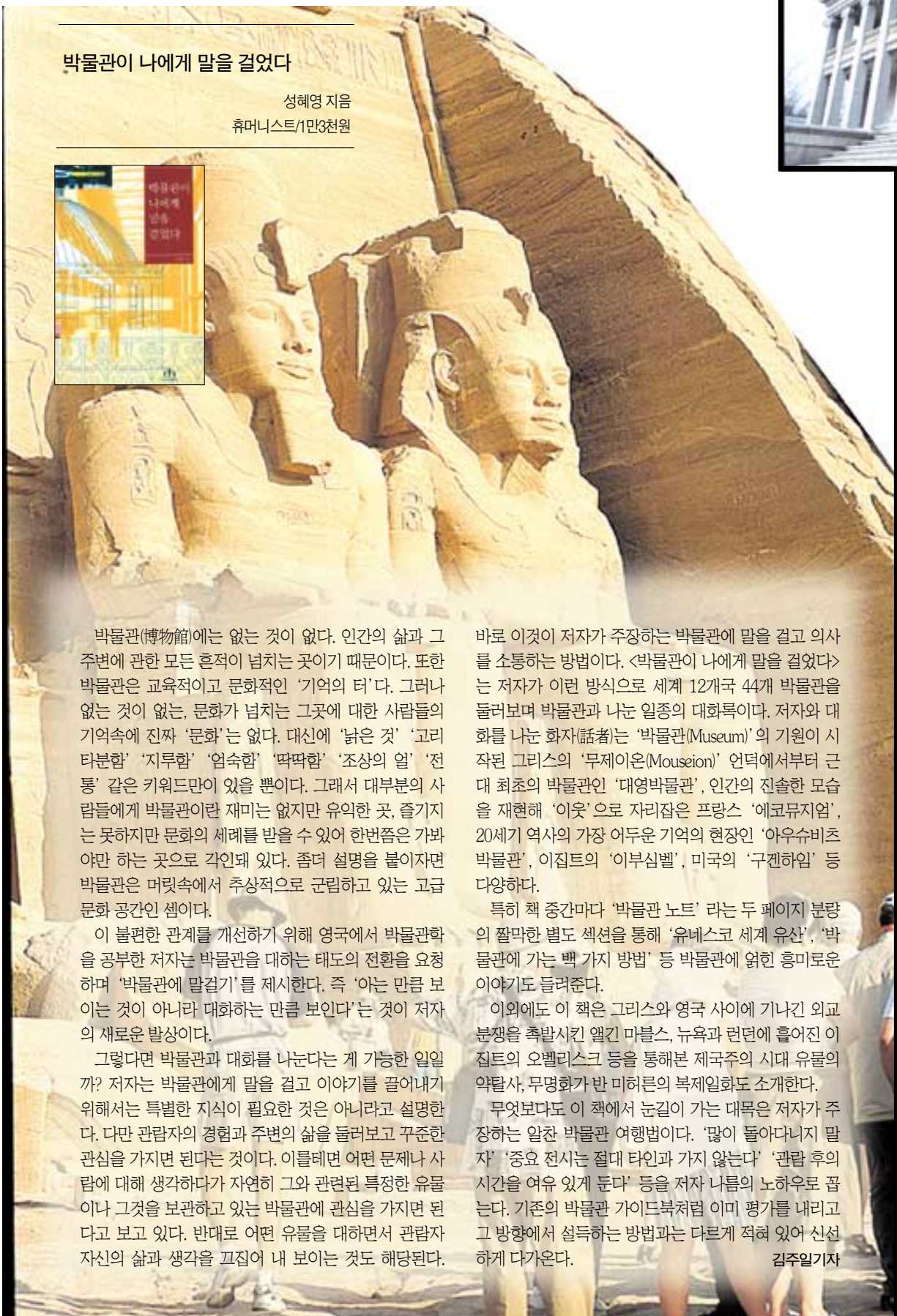


박물관에게 말을 걸어봐!

12개국 44개 박물관과 나눈 대화록



박물관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성혜영 지음
휴머니스트/1만3천원



박물관(博物館)에는 없는 것이 없다. 인간의 삶과 그 주변에 관한 모든 흔적이 남기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물관은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기억의 터'다. 그러나 없는 것이 없는, 문화가 넘치는 그곳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속에 진짜 '문화'는 없다. 대신에 '남은 것' '고리 타분함' '지루함' '엄숙함' '딱딱함' '조상의 얼' '전통' 같은 키워드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박물관이란 재미는 없지만 유익한 곳, 즐기지는 못하지만 문화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 한번쯤은 가봐야만 하는 곳으로 각인돼 있다. 좀더 설명을 붙이려면 박물관은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고급 문화 공간인 셈이다.

이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에서 박물관학을 공부한 저자는 박물관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을 요청하며 '박물관에 말걸기'를 제시한다. 즉 '이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 저자의 새로운 발상이다.

그렇다면 박물관과 대화를 나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저자는 박물관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만 관람자의 경험과 주변의 삶을 둘러보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문제나 사람에 대해 생각하다가 자연히 그와 관련된 특정한 유물이나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에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어떤 유물을 대하면서 관람자 자신의 삶과 생각을 끄집어 내 보이는 것도 해당된다.

바로 이것이 저자가 주장하는 박물관에 말을 걸고 의사를 소통하는 방법이다. <박물관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는 저자가 이런 방식으로 세계 12개국 44개 박물관을 둘러보며 박물관과 나눈 일종의 대화록이다. 저자와 대화를 나눈 화자(話者)는 '박물관(Museum)'의 기원이 시작된 그리스와 '뮤세온(Mouseion)' 언덕에서부터 근대 최초의 박물관인 '대영박물관', 인간의 진화한 모습을 재현해 '이웃'으로 자리잡은 프랑스 '에코뮤지엄', 20세기 역사의 가장 어두운 기억의 현장인 '아우슈비츠 박물관', 이집트의 '이부스빌', 미국의 '구겐하임' 등 다양하다.

특히 책 중간마다 '박물관 노트'라는 두 페이지 분량의 짤막한 별도 색션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 유산', '박물관에 가는 백 가지 방법' 등 박물관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려준다.

이외에도 이 책은 그리스와 영국 사이에 기나긴 외교 분쟁을 촉발시킨 엘긴 마블스, 뉴욕과 런던에 흩어진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등을 통해본 제국주의 시대 유물의 약탈사, 무명화가 반 미허튼의 복제일화도 소개한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눈길을 가는 대목은 저자가 주장하는 알찬 박물관 여행법이다. '많이 돌아다니지 말자', '중요 전시는 절대 타인과 가지 않는다', '관람 후의 시간을 여유 있게 둔다' 등을 저자 나름의 노하우로 꼽는다. 기존의 박물관 가이드북처럼 이미 평가를 내리고 그 방향에서 설명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적혀 있어 신선하게 다가온다.



저자 인터뷰 | 성혜영 씨

“자주 가서 자기 방식대로 보세요”

홍익대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며 본격적인 박물관 연구를 시작한 저자 성혜영씨는 영국 런던의 시티 대학교 예술경영 대학원에서 박물관 경영학을 전공했다. 이후 박물관 큐레이터를 하기도 했던 그가 이번 책 속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털어 놓았다.

△유물 자체에 대한 감상과 이해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 너머의 이야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유물 자체에 대한 감상과 이해만으로는 총체적인 이해에 한계가 있습니다. 박물관이 담고 있는 삶의 흔적은 지나간 수많은 것 중 극히 일부이고, 그 가운데 다시 선택된 유물을 통해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진실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유물에 얽힌 의미와 제작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박물관을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한다면?

“박물관이 제시하는 모든 정보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학문적 목적이 아닌 이상, '내 식대로의 탐색'에 장애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박물관에는 반드시 유물이나 전시를 보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박물관의 정원이 마음에 들거나, 아늑한 분위기가 위안이 된다면, 혹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등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주 발걸음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멀어지지 않게 자주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 있는 박물관들의 변화상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여전히 지난날에 멈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박물관도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박물관의 어개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문화교육 및 문화산업의 발전까지도 도맡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다 보니 박물관의 본분은 망각되고, 이제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허상만 남은 것이 아닌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일반동행식의 체계에서 과감히 벗어나 '작은 유물'을 통해서도 '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박물관의 행정체계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현대음악 사조와 구조분석
김규현·백기홍·임주삼 공저
작은우리/1만7천원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에서 실용음악과 처럼 컴퓨터를 이용해 음악을 만들어 내는 학과가 많이 생겨났다. 이런 현상이 생겨난 데에는 컴퓨터와 디지털 융합학 그리고 뮤직 테크놀러지의 발전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가 손쉽게 쓰는 음악 프로그램(MIDI, 디지털 레코딩, 시퀀싱 프로그램 등)은 모두 현대 음악가들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려는 시도에 의해 그 시초가 만들어진 것이며 앞으로도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에서 더욱 많은 가지가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현대음악 사조와 구조분석>은 그러한 의미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 책은 복잡하고 다양한 20세기의 음악에 대한 종합정리를 주요 사조(思潮)와 양식(양식) 그리고 작곡기법 등으로 분석해 설명한 책이다. 대중음악을 분석해 놓은 것에 비해 근·현대음악을 정리한 책은 숫자가 훨씬 적는데, 이 책은 작품분석을 위해 악보까지 제시하면서 비교적 자세하게 음악사적인 작품양식들을 설명했다.

현대음악 두배로 즐기기

악보 제시하며 작품양식 · 뿌리와 역사 설명

이 책에서는 20세기의 음악을 크게 근대음악(Modern Music)과 현대음악(Contemporary Music)으로 나누었다. 근대음악은 드뷔시를 중심으로 하는 인상주의와 쇤베르크를 중심으로 한 제 2비엔나 악파의 표현주의 음악이다. 또 현대음악은 슈베르트의 구체음악과 슈톡하우젠의 전자음악, 그리고 존 케이지의 우연성음악 등을 통해 이 음악들이 오늘날의 컴퓨터 음악과 어떠한 맥을 통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오리엔탈리즘, 미니멀리즘, 신낭만주의 음악 등 다양한 현대음악의 작곡기법과 경향을 논하고 있다. 여기서 오리엔탈리즘이란 20세기 초부터 서양음악들이 동양적인 음계나 리듬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을 작품 소재로 도입한 사조를 일컫는다. 미니멀리즘은 반복적인 선율패턴 중에 들려오는 부차적인 선율이나 불규칙성, 배음 차이가 생긴 예측 못한 음 등으로 구성되는 테마를 지니고 있다. 음악체형의 중요 부분은 청중의 이해 규정되는 것으로서 청중 자신이 지각을 만들어 제공하는데 근원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음악이 활동하는 장소는 밖에서 고찰하는 객관성과 안쪽에서 체험하는 주관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미니멀 음악이 차차 쇠하면서 이후로 미니멀리즘은 '반복의 원리'로서의 영향만 남게 된다. 이후 과거의 다양한 양식을 혼합해 다시 새로운 양식을 산출하는 미술에서의 '콜라주'와 같은 성향을 띤 신낭만주의 양식 음악에 리듬반복과 모티브 반복 등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현재 우리가 쉽게 듣는 트랜스, 테크노, 레이브와 같은 전자 음악들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리듬과 모티브도 미니멀리즘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음악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지나간 음악사를 살펴보는 의미에서 이 책을 읽어본다면 우리가 현재 즐기는 음악들의 뿌리와 역사에 대해 새로운 면을 알게 되는 재미를 맛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은영(소닉 아트랩 대표)

2000만 불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성중사와 (주)비엔비기업**이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가룽빈가

약 1300mm

91550mm

종25관

※ **법당에 가룽빈가를 설치하시면...**

- ◇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파지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들이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 가룽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 할 수 있어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오디오를 마련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 ◇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 ◇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룽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최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032-772-5451
02-733-6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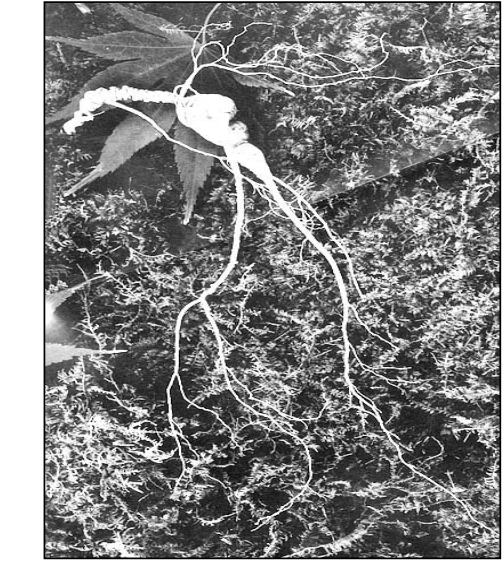
- 제품명 : 가룽빈가
-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웅장한 종소리 및 녹음인 음원(독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왕도 용량에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 겸 스피커(3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회 등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품기능 : 출력(정격출력 150W 이상, 최대출력 250W 이상)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 변경, 알람시계조절, 임의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INCH 3개, MP3장착 - 45분(종소리 20초, 독경 40여분 장착), 오토리버스 기능, 볼륨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메시안 타종 기능(타종 횟수 조절 가능) - 일람기능 (8번 작동 가능, 예: 오전, 오후, 저녁) 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겸 스피커
-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지 모든 부분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 소비자가 : 5,900,000원 (종25관+종틀+스피커3개+마이크+리모콘+기타+인체화합)
- 총제작업체 : 성중사
- 전자종틀제작업체 : (주)비엔비기업

전국지사 및 판매점, 판매사원 모집 1. 초도자금 300만원 개설 가능 2. 무정도 창업가능 3. 불가에 뜻을 가지고 있는 분우 www.bellkorean.com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사형존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초에는 上蔘 120가지 中蔘 120가지 下蔘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蔘중의 첫째가는 君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루미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하 약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佛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정한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단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품품질관리검정(본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